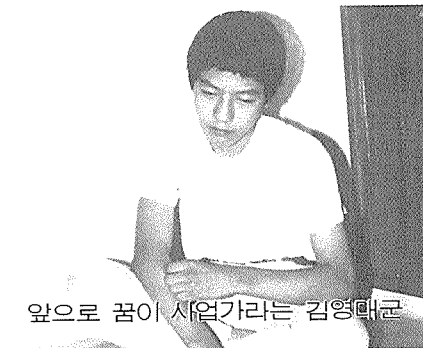


집단검사는 학부모, 학생, 학교의 삼위일체로

지난해 11월 23일 건강관리 협회 전남지부에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심장병(부정맥)이라는 판독결과를 받고 투병생활을 하면서 현재 새로운 삶을 찾은 김영대군(15세·전라남도 광주시 월산동 952-28)의 이야기를 이번 8월호에 기재합니다.



앞으로 꿈이 사업가라는 김영대군



정기적인 집단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세현 검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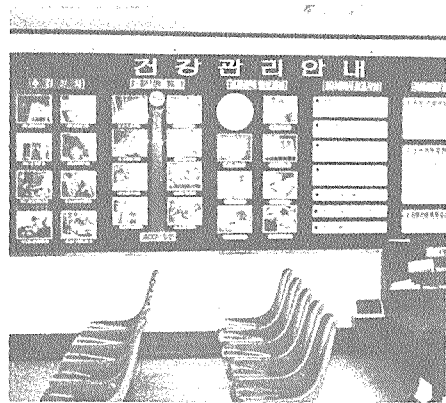


김영대군의 평소 상태를 설명하는 아버지 김옥남씨



김현수사업과장(사진위)과 인터뷰

전남지부 상담실
및 검사대기장소



이 름 : 김 영 대
성 별 : 남자
나 이 : 15세
주 소 : 전라남도 광주시 월산동 952-28
생년월일 : 1972년 1월 5일생
병 명 : 심장병부정맥

인적사항이 적힌 자그마한 수첩을 들고 조금은 긴장되고, 궁금한 마음으로 여름비가 촉촉히 내리는 호남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고속버스에 기자는 몸을 실었다.

저희 검사결과는 심장병, 부정맥이었지요.

『김영대군은 지난 85년 11월 23일 어머니와 같이 왔었어요. 그당시에는 얼굴이 무척 창백하였고 몹시 아위어 보였지요. 그후 11월 25일 심전도검사 판독 결과가 나왔읍니다. (판독의 : 마제숙 전남의대교수) 심장병의 일종인 부정맥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11월 25일 서신으로 결과를 통보했읍니다.』

김영대군의 심전도검사를 담당 한 김향란주임병리사(여·28세)가 말하는 김영대군의 첫 검사결과였다.

부모와 학생, 학교와 집단검사는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는 김영대군이 학교에 등교 한후였기에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조제현검사소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기로 했다.

- 김영대군의 경우 조기에 증상을 발견 한 것인지요. -

『김영대군의 경우는 조기에 발견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검사를 어릴때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한번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먼저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김영대군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어머니가 신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하여는 부모님들에게
도 책임이 있다』고 강
조하는 김기창 박사



경을 써서 건강관리를 체크하니 증상을 사전에 발견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집단검사 역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김영대군 한 명만 생각하면 집단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어린 학생들의 몸에 여러가지 질병이 자신도 모르게 침투해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단검사는 년 1~2회이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교와 집단검사의 필요성등을 강조하는 조제현검사소장의 얼굴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수가 있었다.

이 아이는 평소에도 호흡이 곤란했어요

광주시에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 7시30분. 모든 사람들은 퇴근길의 러시아워에 밀려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기자는 전남지부 김연수사업과장과 함께 김영대군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광주시 월산동 952-22에 소재한 김군의 집은 아담하고 소박한 전형적인 한국형 가정집 인상을 느낄수가 있었다.

『영대는 평소에도 호흡이 곤란하고, 운동만 하여도 얼굴이 창백했어요. 말이 없고, 내성적인 아이라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날 관찰을 해보니 정말 이상함을 느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23일 건강관리협회를 찾아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집은 건강관리협회 옆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었지요. 또한 경제적인 부담도 적고, 검사시간도 짧아서 검사받기가 쉬었



◀
 앞으로의 꿈은 『사업가』라고 밝히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영대군

가끔 숨이 조금씩 막히지만 괜찮습니다.

읍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심장병의 일종인 부정맥이란 판독결과서를 받고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수술까지 해야하는 큰병인줄 알고 온 식구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 당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김옥남씨(46세·사업가)는 자상함과 가정의 가장으로서 강한 책임감과 진한 부성애(父性愛)를 느낄 수가 있었다.

영대군에게 몇마디 말을 던져보았다.

-영대군 현재의 건강은-

『가끔 숨이 조금씩 막히지만 괜찮습니다.』

-특별하게 아픈데는 없어요?-

『예.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갑자기 찾은 방문객이어서 그런지 무척 당황하는 모습이 보인다.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지장은 없어요.』

-영대군 앞으로 꿈은.-

『사업가입니다.』

자리를 같이한 가족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건협 검사결과서를 가지고 김기창내과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아 며칠간 통원치료를 하면 괜찮다고 하기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날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김옥남씨.

『영대아버님, 앞으로 영대군의 건강관리는 저희 전남지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시로 체크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저희 협회에서 건강검사를 받으십시오.』 옆에 자리를 같이 한 김연수사업과장이 이야기의 끝을 맺어주었다.

병명은 심장병의 일종인 부정맥입니다.

다음날인 12월 오후 12시, 김연수사업과장, 조제현검사소장과 같이 김영대군을 진찰 한 김기창박사를 만날수가 있었다.

『김영대군은 85년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통원치료를 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심장병의 일종인 부정맥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인 변화로서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증세로서 기외수축의 부정맥이죠.』 당시의 진찰카드를 보면서 설명해 주는 김기창박사.

『김영대군은 이러한 경우는 아니지만 같은 연령의 학생들은 입시라는 크나큰 벽이 있기에 수면부족, 수면제복용, 흥분제복용 등 여러가지의 약물을 먹는 경우가 흔하지요. 이럴때 부모님들이 신경을 안쓰면 그또한 심한 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대하여는 부모님들에게도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김기창박사.

- 김영대군의 치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

『약 10일간을 통원치료하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 김영대군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

『심장병부정맥은 청소년의 경우 류마치스열을 앓고 있을 때 급성신



◀ 같은 연령의 학생들은 입시라는 크나큰 벽이 있기에 수면부족, 수면제복용, 흥분제복용 등 여러가지의 약물을 먹는 경우가 흔하지요.

『앞으로 전남지부는 미
래지향적인 사업 방
향으로 일을 추진 할 것입
니다』라고 말하는 이홍량
사무국장.



근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수술까지 단행해야하는 큰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모든 질병은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임을 강조하는 김기창박사. 오랜 시간을 의료계에 몸담은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논리임을 느낄 수가 있었다.

소아들의 질환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입니다.

이홍량 전남지부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김영태군 같이 소아성인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업계획은? -

『건협 전남지부는 소아성인병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비만, 소아당뇨, 소아신장, 소아심장병등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아성인병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따른 홍보사업 방향은.-

『내용이 알찬 구전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집단강연회, 좌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TV방송등 메스콤을 이용한 홍보도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남지부 사업의 활성화방안은.-

『내원자 중심사업과, 지역근로자(사업체)집단 검사사업 강화와 생활보호대상자 검진사업 등을 강화하여 미래 지향적인 사업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4회 보건의달에서 대통령국민포장을 수여받은 바 있는 이국장의 말에서 전남지부의 우수성을 발견할 수 있어 흐뭇한 마음이다.

기자는 서울로 향한 기차를 타면서 문득 스쳐가는 말이 생각났다.

“건강관리는 건강할 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는 말이.